

불보살 찬탄 법답게 불러야 '공덕'

법패 안차비소리 해방후 첫 강의-송 암스님

“아— 으—” 마치 범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듯한 법패소리. 이 소리와 작법(춤)을 웬만큼 하는 사람이면 승속을 망라해 모두 송암스님(종교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지정)에게 사사받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불교의식의 요체인 법패를 62년 동안 지켜오며 후진을 길러온 한국불교 어산 종장 송암스님. 올해로 꼭 80세의 고령에도 오는 27일부터 봉원사영산재보존회(중요

문화재 제50호 지정) 부설 범음대학에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법패의 안차비소리 일체를 직접 강의한다. 더구나 지난 8월 윤달을 누구보다도 바쁘게 보낸 노인직의 송암스님을 봉원사에서 만났다.

대하는 책임감만 무거웠습니다. 늦었지만 흥 정리를 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스럽고 많이들 배웠으면 합니다.

-강의기간이 1년과정인데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안차비소리의 바탕은 다 익히게 되는데 기간이 촉박한 편이지요. 따라서 수업받고 각자 충분히 시간을 들여 열심히 복습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법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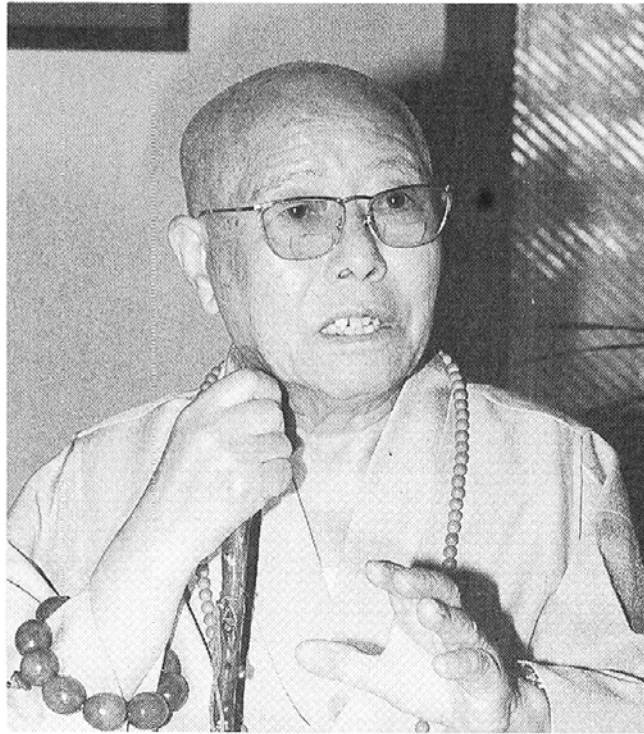
수요 인터뷰

부흥문화재 제50호 지정) 부설 범음대학에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법패의 안차비소리 일체를 직접 강의한다. 더구나 지난 8월 윤달을 누구보다도 바쁘게 보낸 노인직의 송암스님을 봉원사에서 만났다.

봉원사 부설 범음대학서

-스님, 목소리도 타고난 미성(美聲)이라 칭명하시지만 건강도 좋아 보이십니다.

식을 비롯해 각종 제동·하안거의식 등 관혼상제의식을 여법히 치루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패창법이지요. 주로 상단의 불보살, 중단의 신중, 하단의 영가들에게 공양재물을 권하며 축문올리는 소리입니다. 강의는 △생전에수재 △중례 △시달림 △다비문 △신중대례 △관음예문 △4명일(明日) 대령 △점안의식 △구부시식 △전시식 △각종 소 △순단 절차 △식순절차 △회향 및 소대절차 등 14과목입니다.



안거·점안·재의식등 14과목 개설 창법 체계전수

입으로 소리전하고 마음으로 익혀야 성음보존

▲무척 좋아요. 19살에 출가해 지금까지 매일 새벽이면 꼭 일어나 주송을 해왔습니다. 세계 공양도 보리밥에 콩을 뒤 고슬고슬하게 먹는데 식욕도 좋지요. 그러나 어찌나 저찌니해도 평생 불보살님의 찬력을 노래 부르고 춤추며 언제나 환희심 속에 살아왔으니 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부처님 가피지요.

-이번에 해방이후 처음으로 법패의 안차비소리 일체를 체계적으로 강의하신다고요?

▲법패의 창법에는 안차비소리, 훗소리, 짓소리 그밖에 화청이나 회심곡 등이 있어요.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우렁찬 합창곡과 같은 법패소리는 여럿 대중이 모여하는 짓소리의 창법인데 반해 안차비소리는 주로 산문으로 된 부처님 가르침을 흠뻑히 읽어들이는 듯한 '소리'입니다. 보통 의식을 총칭하는 법주가 요령을 혼동하며 하는 염불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상주권공 각배 영산 등을 다 마쳐야 무한히 소화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가르칠 사람도 드물었고 가르쳐야 할

법패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번 교육에 수강생들이 스님의 음을 음정 등을 똑같이 배우려고 녹음기도 동원하고 할테지만요.

90살되면 '석문의범' 집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법패의 신묘한 성음을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입으로 소리를 전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들일 뿐입니다. 근래 오션악보지에 법패를 채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법패의 제 맛을 도저히 살릴 수는 없어요. 단지 법패가 대중에게 기록할 뿐인데 그나마 법패를 현대사람들에게 널리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마운 일이지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齋)가 자주 열리고 법패가 대중에게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패를 배우겠다는 젊은 스님들도 많이 생기고 자연히 전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패는 항상 소리를 외고 읊는데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합니다. 교과서도 없이 마음으로 하는 음성공양이라 스스로 소리를 내고 더 잘하려는 연구가

따라야 잠시 놓으면 금세 잊어버리고 말지요.

-지난 8월은 생전에수재로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계의 윤달종속도 많이 달라졌지요?

▲아주 많이 변했어요. 큰 절부터 작은 암자까지 모두들 생전에수재를 지내고 있어요. 과거 윤달 재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비해 올해만 20여차례를 지냈으니깐요. 법패가 대중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셈이라 반가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법한 의식절차가 마련돼야하고 동참대중 모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법패를 널리 알린다는 명분만 앞세워 잘못 전해지는 것이 내가 가장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나는 90살부터는 일체 외부 출입을 않고 들어앉아 <석문의범>을 쓰려고 해요.

-스님의 원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공으로 이번 안차비소리 강의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위영란 부장

박규채 <칼럼>

인천 앞바다에 덩그러니 떠 있는 영종도의 명산 백운산 종턱의 약수암과 그 일대의 양지 바른 골.

내 어머니의 발원으로 이곳의 옛 절터와 약수를 찾아내어 약수암이라는 암자를 이룩함으로써 내 생애와 인연이 된 이곳은 나의 2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른 오늘날까지 세월 동안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자 내 마음의 쉼처를 풀어내는 수행처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약수암을 찾는다. 집안 대대로 불가(佛家)인 덕택에 절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듯도 하겠지 만 나에게 있어 불교는 생명의 은인이다.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겸손의 종교다.

7살이 되던 해 겨울, 얼음을 지치며 놀다 우물가 근처에서 넘어진 일이 있었다. 그 이후로 내 생애 고통의 시작이었다.

넘어진 이후로 생긴 나의 병은 내 부모님을 동원해서 애가 했다. 흉악인 줄 알고

나는 어느새 다시 활력을 찾곤 했다. 그러나 약수암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난 은근히 마음이 조급해지는걸 느꼈다. 그 또한 몸이 아파 왔던 고통과 진배없는 마음의 고(苦)가 되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 여러 날을 보내다 내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저 그리워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염주를 돌리며 명호를 외치던 부모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리다 난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세세생생, 이곳저곳에 부처님이 아닌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도 걸리지 않고 '옴나미반메훴' 기도를 드린다.

매일 아침 염불하며 전법발원

부모님 기도로 병고쳐...가피입었으니 회향 당원

치료를 계속했던 것이 놀라웠던 것이다. 평소 신심이 돈독하시던 아버지는 배낭에 나를 넣어 뚝배기에 앉히고 전국 곳곳의 절을 찾아다니며 정성들여 치유의 기도를 올리셨다. 그러다 정확하신 곳이 강원도 안변에 있던 천곡사. 아버지는 그곳에서 나를 부처님께 맡겼다.

하루하루를 자식의 패유를 빌며 부처님 인연법에 의지하시던 부모님은 매일같이 한결같은 기도를 올리셨다. 한줄기 빛이 보이는 일이 생겼다. 어머니가 한 청년이 후운 겨울 얼음을 깨고 다가와서는 잉어를 내놓는 꿈을 꾸신 것이다. 선봉에 한가닥 희망을 거신 부모님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더욱더 정진에 몰입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진짜 한 청년이 잉어 한 마리를 들고 와서는 내 놓았다. 그 후 나는 거짓말처럼 낫게 되었고,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됐다.

부처님의 가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된 나는 평소 부모님이 보여 주시던 모습을 따라 절을 찾아 삼과 죽을,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왔던 곳과 죽은 후에 가야할 곳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없애 버리고 불심을 닦고 있다. 부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이렇게 도와 주셨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부모님이 그리워서 힘없이 지친 모습으로 부처님 앞에 앉으면



불교의 교리도 사상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는 그저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며 살아 갈 뿐이다.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는 동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한다. 또 다른 하나의 포교방법이라고 할까. 부처님 가피를 받았으니 회향하는건 당연한 일일

터이다.

나이가 들어 욕심이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롭고 인정이 넘치는 세상의 참맛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다. 불자들이 싸우는 일도, 욕심에 불사를 그르치는 일도 없는.

부산·광주 불교방송 지방국의 개국과 불교TV의 개국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고, 가까이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제 끝 내 바람대로 성취되리라 믿는다.

나는 그저 예나 다름없이 기도하고, 부처님이 내게 주신 가르침대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 가련다. 인간의 행복이나 부귀영화 등 존귀함은 전생에 닦은 바 인연이 되고, 금생에 닦는 바대로 얻어지는 법, 그저 겸손하게 열심히 내 직업에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충실하며 끝없는 노력으로 살고 싶은 것이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p>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사서함 1-2 (구 상무대 무각사 내)</p> <p>전화 .. 062-1376-13223/4</p> <p>회장 홍조 합장의 회원연락처</p>	<p>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사서함 1-2 (구 상무대 무각사 내)</p> <p>전화 .. 062-1376-13225</p> <p>회장 안진오 외 임원 및 신도 일동</p>	<p>주소 ..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p> <p>전화 .. 062-1375-17600/3</p> <p>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p> <p>조신스님 천인 합장</p> <p>광주 불교대학·대학원</p> <p>원장 김두원 / 학장 정경철 / 부학장 최성렬</p>	<p>주소 .. 광주 광역시 동구 운림동 56</p> <p>전화 .. 062-1226-10107</p> <p>대한불교조계종 증심사</p> <p>주지스님 영조 합장</p>	<p>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p> <p>전화 .. 062-1262-10321</p> <p>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p> <p>주지스님 현지 합장</p>	<p>주소 .. 광주 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0-17</p> <p>전화 .. 062-1226-15161/4</p> <p>팩스 .. 062-1234-18485</p> <p>대한불교조계종 능인회</p> <p>회장 김두원</p> <p>·사단법인(광주) 불교인문화원 ·광주 불교인문화원 새마을부녀회 ·지정문화재연구소</p> <p>임직원일동</p>	<p>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동 (국일가스2층)</p> <p>전화 .. 062-1266-14991</p> <p>사회 운전자회</p> <p>사무국장 김경수</p> <p>총무 김용문</p>
--	--	--	---	--	--	---